

일본문학 교육 방법 II

-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赤い繭)』 읽기 -

이 정 희*

(e-mail : leejh@uu.ac.kr)

目 次

1. 들어가기
 2. 교재로서의 『붉은 누에고치』
 3. 일본 교과서 『지도자료』 분석
 4. 『붉은 누에고치』 수업 진행
 5. 맺음말-문학수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

1. 들어가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국에서 자국문학이 아닌 외국문학을 교실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다.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도 그렇거니와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외국문학 교육이 외국어 교육과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더욱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외국어 실력, 학습자의 문학적 감성, 학습자의 교양 및 학습 정보량의 차이 등이 문학 작품을 읽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같은 작품도 각각 다른 독자, 또는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읽게 되면 아주 다른 감상과 의미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일 것이다. 그동안 일본문학 교육방법론에 대해서 2편의 논문을 썼다¹⁾. 한편은 문학교육의 의의,

* 위덕대학교 교수. 일본현대문학전공.

필요성 등에 대한 언급이고, 다른 한편은 필자가 그동안 강의실에서 행한 일본 문학 교육의 한 양상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웬지 흠족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어떻게 하면 일본문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가 하나의 과제로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급기야 지난 한국일본문화학회 학술대회 때 일본근대문학 분과에서 ‘일본문학 교육 방법’에 대한 미니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맡았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해주신 교수님들도 같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장감 있고 실감나는 발표회장이 되었다²⁾. 당시 미니심포지엄은 일본문학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강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강의 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필자가 수업에서 실시한 일본문학 교육의 한 예로 구체적으로 작품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텍스트로 사용하는 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채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지교 교사들이 참조하는 『지도자료』에서는 어떻게 작품 감상 지도를 하고 있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학교육이 지니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교재로서의 『붉은 누에고치』

문학 교육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학습자들이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은 누가 대신 읽어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강의실에서 함께 읽어 내려간다는 전제하에 단편소설을 선택하고 있다.

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赤い繭)』³⁾는 200자 원고지 16매정도의 짧은 단편소설이다⁴⁾. 단편소설은 필자가 자주 사용하는 일본문학 수업 텍스트다⁵⁾.

-
- 1) 줄고 1 「일본문학 교육방법론 1-문학 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국제언어문화학회 『국제어문학』 제20호, 2009.10)
 - 2) 줄고 2 「다매체 시대의 일본문학 교육방법론」(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46집, 2010. 8)
 - 3) 한국일본문화학회 제38회 국제학술대회(2010년 10월 23일)에서 ‘일본문학 교육 방법’에 관한 미니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서 육근화교수(대전대), 윤재석교수(한밭대), 정상철교수(극동대) 그리고 필자가 발표를 담당했다.
 - 4) 『赤い繭』(1950년12월 『人間』).
 - 5) 작품이 짧은데다가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전문을 논문 뒤에 【참고자료】에 실어놓았다. 이 작품은 필자 번역으로 1999년 2월 발행인 잡지 『한국문학』에 실린 적이 있다. 이후 2000년에는 아베 고보 단편집 『벽』(위덕대학교출판부 출판)에 실렸다. 둘 다 필자가 번역했다.
 - 6) 이 밖에도 필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편 소설 텍스트로는 夏目漱石 『夢十夜』, 芥川龍之介 『鼻』·『蜘蛛の糸』, 梶井基次郎 『檸檬』, 志賀直哉 『城崎にて』, 星新一 『つねならぬ話』 등이 있다.

『붉은 누에고치』는 196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신국어Ⅱ』 속에 현대국어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아베 고보의 작품 『붉은 누에고치』가 고등학교 교재로서 채용된 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왜냐하면 소위 ‘교과서 작가’로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에 비하면 교재라는 분야에서는 이질적인 텍스트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에서 『붉은 누에고치』는 5종류의 교과서에 실려있다.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こころ)』이 25종류, 나카지마 아츠시(中島敦)의 『산월기(山月記)』가 23종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라쇼몽(羅生門)』이 19종류, 모리 오우가이(森鷗外)의 『무희(舞姫)』가 14종류, 카지이 모토지로(梶井元次郎)의 『레몬(檸檬)』이 6종류도 되어 있어서, 『붉은 누에고치』는 그 다음 순으로 채용수 순위 9위이다⁶⁾.

대개 국어교과서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세 영역에서 문학작품이 채택되고 있다⁷⁾. 장르를 보면, 소설, 수필, 고전문학, 시 등이다. 소설을 보면 비교적 단편소설이 많다⁸⁾.

그럼, 아베 고보의 『붉은 누에고치』가 교과서에 실리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⁹⁾.

아베 고보 문학의 기초로서 가장 큰 특징을 일상성과의 싸움으로 보았다. 아베 고보 작품 속에는 등장인물이 벽으로 변신한다거나 막내기, 누에고치, 식물, 액체 등으로 변신을 한다거나 한다. 이 변신 모티브에 대해서 아베 고보는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¹⁰⁾. 변신 모티브를 직시하면 현실의 두꺼운 껍질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했다. 현실을 덮고 있는 껍질이야말로 스테레오 타입의 벽으로 일상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소설의 기술로 변신 모티브를 이용한다거나, 우화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패러독스, 아이러니, 패로디, 쉬르리얼리즘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아베 문학의 특질을 잘 나타낸 것이 『붉은 누에고치』로, 교재의 채택 이유를 들고 있다¹¹⁾.

6) 京都書房『高等学校の国語教科書は何を扱っているか』

7) 万屋秀雄「文学教育入門」(中川正文篇『児童文学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1982)

8) 한편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에 대해 문학성을 운운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학 교육에 있어서 독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는 문학성 높은 작품에 대한 독서지도와 작품 감상지도 등도 문제가 될 것이다.

9) 교과서에는 <지도자료>라는 책이 있다. 이 <지도자료>에는 각 단원마다 상세한 정보 및 자료가 실려져있다. 예를 들어 작품 채용 이유에서부터 작가 소개, 주제 도출과 관련된 작품 해설이 자세히 적혀져 있다. 그리고 채택이유에 대해서도 적혀져 있다.

10) 安部公房『砂漠の思想』(講談社, 1970) p.32

그러나 이 교재의 난해함으로 작품에 나타난 변신의 의미와 우화적인 요소를 들고 있다. 게다가 현대인들이 처한 한계상황이라든지, 실존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요소들은 피해갈 수가 없는 과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종래의 묘사 중심의 리얼리즘을 뛰어넘은 아베 고보의 문학이 신선할 것이고, 오히려 아베 고보 문학이 주는 상징성에 흥미를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소설의 재미나 구성이 탁월한 만큼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만, 반면에 소설이 주는 황당무계함으로 인해 아베 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일면도 갖고 있다고 본다. 『붉은 누에고치』는 단순한 변신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3. 일본 교과서 『지도자료』 분석

3.1 주제 · 구성

먼저 『붉은 누에고치』의 주제에 대해서는 스테레오타입화 된 일상성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초조함의 본질적인 추구, 현대인의 고독, 현대사회의 상황과 살아간다는 것과의 관계, 존재에 대한 의혹 제시 등을 들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질서(일상성)에 반항해서 전력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남자, 질서로부터 배반당하고 정착을 금지 당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져 ‘유랑하는 유태인’ 처럼 결국에는 반일상적인 존재로 변신(실존의 죽음)해 버리는 이야기로 보았다¹²⁾.

막상 『지도자료』에 있는 주제를 파악해 보니, 고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다. 물론 작품이 주는 난해함도 있겠지만, 해설 자체도 난해하다. 여기서 담당 교사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담당 교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작품 구성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누었다.

제1단락 : 왜 집이 없는지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집을 찾아서 계속 걷는다.

-소1단락 : <나>의 의문

-소2단락 :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떤 집 앞에 서서 대문을 두드

11) 新国語編修委員会編 『新国語Ⅱ 指導資料』三省堂.1992. pp.160~161(이하 『指導資料』라고 함)

12) 『指導資料』 p.162

리고 있다.

-소3단락 : 모든 것이 누군가의 것이고, 왜 내 것은 없는 것일까.

제2단락 : 집을 찾아 계속 걷기만 하는 <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 발끝에서부터 실이 풀려 다리가 짧아지기 시작했다. 점점 온 몸이 풀려나가 결국에는 <나>는 커다란 누에고치가 되었다.

-소1단락 : <나>는 계속 걷기만 한다.

-소2단락 : 신기한 일이 발생해 <나>는 소멸한다.

-소3단락 : 누에고치로 변신

지도 자료에는 작품 구성에 대해서 2단락으로 나누고 있지만, 2단락으로 나누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만약에 작품이 누에고치로 변신한 다음 끝이 났으면 2단락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변신 후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끝내 난 소멸했다.

드디어 커다란 텅 빈 누에고치만이 남았다.

아아, 이제야말로 쉴 수가 있다. 석양이 누에고치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내 집이다. 하지만 집이 생겼어도 이번엔 돌아갈 내가 없다.

누에고치 안에서 시간이 멈춰졌다. 밖은 어두워졌지만, 누에고치 안은 언제나 황혼으로, 안쪽에서 비춰지는 저녁노을 색으로 붉게 빛나고 있었다.

이 두드러진 특징이 그의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는 누에고치가 된 나를 철로 건널목과 레일 사이에서 발견했다. 처음엔 화를 냈지만, 곧 신기한 물건을 주웠다고 생각하고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잠시 그 안에서 데굴데굴 구른 후, 그 남자의 아들의 장난감 상자 속으로 옮겨졌다.¹³⁾

위의 인용은 작품 마지막 부분이다. 『지도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제1단락을 변신 전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제2단락은 변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성상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부분을 제3단락으로 본다면 변신 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해석이 가장 난해하다 하겠다. 먼저 새로운 등장인물로 ‘그 남자’

13) 安部公房 『赤い繭』 (『人間』 1950. 12) p.40.

가 등장한다. 이 등장인물을 새로운 인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1단락에서 나온 ‘곤봉을 든 그’와 동일인물로 볼 것인가는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에 그려지는 ‘그 남자’에 대해서 모리카와씨는 앞에서 나온 ‘그’와는 다른 인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나’를 기차의 건널목과 레일 사이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기차 건널목과 관계가 있는 인물일 것이다. 예를 들면 매일 건널목을 건너다니는 인물이라든지 또는 우연히 이 건널목을 지나던 행인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차 건널목과 레일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 단순히 일개의 통행인이라면 그렇게 화를 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일개의 통행인은 아닌 것이다. 철도와 특별한 관계를 지닌 인간, 예를 들어 철도원이라든가 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일지도 모른다.¹⁴⁾

이 모리카와씨의 견해에는 설득력이 있으며, 이제는 하나의 정설로 되어 있다. 모리카와씨는 ‘그’가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단지 ‘그’가 화를 낸 것은 ‘나’의 변신체인 ‘누에고치’가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 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건널목의 안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누에고치’가 ‘그’의 눈에는 장애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철도원’ 같은 인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¹⁵⁾.

3.2 어구 해설과 지도 포인트

『지도자료』에는 문장마다 필요한 어구 해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중요한 어구 몇 개만 설명하고자 한다.¹⁶⁾

①‘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 :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 설정. 존재의 불안의 근거. 사람들은 보금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지만,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 걷기만 하고 있다.

②‘마침 새끼줄 자투리가 떨어져 있어서 난 목을 매고 싶어졌다’ : 때마침 새끼줄이 떨어져 있어서, 때마침 목을 매고 싶어졌다. 삶(존재)의 피로가 느껴진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득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③‘새끼줄은 결눈질로 내 목을 노려보면서, 형제여, 내 안에 쉬거라’ : 삶의

14) 森川達也「短編小説の面白さ『赤い繭』」(『国文学』4卷8号, 1969.8)

15) 출처 『일본 현대문학의 기수 아베 고보 연구』(제이앤씨, 2008) p.68.

16) 『指導資料』「語句の解説」 pp.163~171

피로, 초조함을 알아차린 쓸모도 없는 새끼줄은 <나>를 형제라고 부른다. 즉 새끼줄 쪽에서 보면 <나>는 동등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나중에는 누에고치로 변신해서 감금되고 만다. 지문과 회화체와의 융합, 간결하고 템포가 빠른 문체. 뛰어난 희곡작가가 될 징조를 찾아 볼 수 있다. 결눈질로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목을 노려본다. 블랙유머, 의인법.

④‘나는 새끼줄과 형제가 아니며’ : <나>는 오로지 집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행동 할 수 없는 새끼줄 꼬트머리 따위 하고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모습은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행동파로 프라이드가 있는 소위 반질서의 투사이다.

⑤‘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느새 확신으로 변해, 다음 행동의 탄력을 받는다.

⑥‘친절해 보이는 여자가 내다보며 웃었다.’ : 친절해 보이는 것이다. 이견 외견상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아이러니. 세상 일반적인 사회의 얼굴이기도 하다. 당연히 주인공의 반사회적, 반일상적 논리와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⑦‘희망의 기운이 심장 가까이 스며들어, 내 심장은 평평하게 넓어져서 깃발이 되어 펄럭이고 있었다.’ : 릴케 시를 탐독해서 『무명시집(無名詩集)』을 문학적 출발로 한 아베 고보를 상기시키는 비유 표현. 이와 같은 시각적 표현은 아베 고보의 상투적인 수법.

⑧‘당신 집이라고 해서 내 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일상성의 사유 법칙인 ‘A는 A이다’를 역설적으로 표현. ‘당신’의 집, 즉 ‘소유’, ‘이름’의 부정, 나아가 그것들에 대한 의혹제기이다.

⑨‘여자의 얼굴이 벽으로 변하여’ : ‘벽’은 일상성, 질서, 사회, 상식 등의 비유. 그 무표정, 혹은 거부의 표정을 표현하려 한 것. 따라서 이 경우 ‘여자’는 질서, 일상성에 대한 의문제기라고 할 수 있다.

⑩‘도관이 내 집’ : 노숙자 또는 부랑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듯한 <나>의 생활을 연상할 수 있다.

⑪‘모두의 것’ :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수결 원칙’, ‘약속 사회’ 등에 대한 통렬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⑫‘그 외의 장소에서 발을 멈추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만으로도 넌 죄를 짓게 되는 거야’ : ‘반질서’ ‘반사회적’인 존재인 <나>라는 주인공이 설 장소는 지하실 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누에고치로 변신 할 수밖에 없다.

⑬‘유랑하는 유대인’ : 괴테, 위즈워드의 시에도 종종 나온다. 같은 소설 제목도 있다.

⑭‘내 집이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뺄 수도 없다.’ : 현실

세계도 비현실세계라고도 할 수 없는 반질서 세계의 주인공인 <나>에게는 질서와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목을 매는 것은 질서 세계의 가치관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⑮‘변형된 발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스스로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질서 체계는 반질서적인 존재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다.

⑯‘실은 이윽고 내 전신을 봉지처럼 감쌌지만,’ : ‘실’은 <나>의 존재로부터 뺏어져 나온 것이지만, 봉지처럼 나를 감싸고 안쪽에서부터 굳어져갔다. 질서(사회)에 대한 자기방어라고 해도 좋다.

⑰‘그리고 끝내 난 소멸했다.’ : 존재의 해체. 그러나 <나>는 ‘무’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까. 누에고치로 변신한 것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⑱‘드디어 텅 빈 누에고치만 남았다’ : ‘텅 빈’이라는 표현은 주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의 존재증명인 <나>의 새로운 세계, 절대적인 자유의 획득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⑲‘하지만 집이 생겼어도 이번엔 돌아갈 내가 없다.’ : ‘집’이 생겼는데 돌아갈 ‘나’의 존재가 없다. 이 작품의 핵심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아베 고보의 진수를 보여주는 훌륭한 역설적인 표현이다.

⑳‘누에고치 안에서 시간이 멈춰졌다.’ : 아베 고보 문학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의 이중성. 일상세계와 반일상세계와의 이중구조.

㉑‘누에고치가 된 나’ : 아베 고보 작품에는 수많은 변신 이야기, 실종자들, 유명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하나의 장치로 이용하는 아베 고보의 의도는 무엇일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두꺼운 껍질을 통해서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구멍과도 같다고 작가 아베 고보는 이야기 한다.

㉒‘처음엔 화를 냈지만’ : 도대체 왜 화를 낸 것일까.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탁구공과 같은 존재. 보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두드러진 특징’이 열차운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밝게 빛나고’ 있는 특징이 질서(상식)의 측에 선 ‘그 남자’를 불쾌하게 한 것일까.

㉓‘신기한 물건을 주웠다고’ : 평범한 샐러리맨의 상식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다.

㉔‘그 남자의 아들의 장남감 상자 속으로 옮겨졌다.’ : 사회(질서)로부터 소외되어 자폐적인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닫힌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 누에고치는 무용지물이 되어 ‘아들의 장남감 상자’ 속으로 옮겨졌다. 도대체 누에고치는 그 이후 어떻게 될까. ‘장남감 상자’라고 하는 일상성의 감옥 속에서 계속 ‘휴식’을 취하고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허무주의의 악몽 속에서 새로운 인식자로 재탄

생 할 수 있는 것일까.

위와 같은 어구 해설은 작품을 이해하려는 학습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읽으려는 학습자들에게는 일종의 선입견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아베 고보 문학이 지니는 사회로부터의 소외, 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등에 포인트를 두었다고 본다.

지도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¹⁷⁾

①작가의 연표 등에 의해 작품의 성립 연대, 패전 직후의 주택사정에 대해서 환기시켜 준다.

②‘날이 저물고 있었다’ 라는 모두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③주인공 <나>는 어떠한 인물인가.

④작가 아베 고보의 작품 중에 변신하는 주인공들. 이름이나 지위가 없는, 혹은 실종에 의해 그것을 상실해 버린 인물들. 즉 사회적 관계가 없는, 존재권을 가지지 않는 인물들이다. 혹은 부조리(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존에 대한 자각을 지닌 인물, 실존적 사유자라고 볼 수 있다.

⑤비유 표현의 특색에 대해서.

⑥‘여자의 얼굴’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해 보자.

⑦변신담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

⑧‘곤봉을 든 남자’와 ‘그 남자’에 대해서 비교하기

⑨‘누에고치’의 크기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할 것.

⑩작품의 뒤를 계속해서 이어서 작성해 보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지도자료』에는 소위 해답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실려 있다¹⁸⁾.

4. 『붉은 누에고치』 수업 진행

그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일본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예를 보고자 한다¹⁹⁾.

17) 『指導資料』 「指導のポイント」 pp.163~171

18) 『지도자료』에 실려 있는 소위 해답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9) 필자의 수업 『일본문학감상』(3학년 전공)시간에 ‘단편소설 읽기’에서 수업한 일례이다.

- ① 『붉은 누에고치』 낭독 CD를 들려준다.
 - 처음에는 활자로 된 텍스트를 나누어 주지 않고 들려준다. 한번 들려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11분이다.
 - 한 번 더 들려준다.(연속 2번 들려준다)
 - 이번에는 텍스트를 나누어 주고 작품을 눈으로 보면서 듣게 한다.
- ② 작품 낭독을 한다.
 - 수강생 전원이 1인당 2문장씩 계속해서 돌아가며 낭독한다.
(반복해서 작품을 두 번 낭독한다.)
- ③ 담당 교사가 작가와 작품 성립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 ④ 작품을 해석 한다.
 - 해석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붉은 누에고치』 낭독 CD를 들려준다.
 - 수강생 전원이 1인당 1문장씩 읽고 번역한다.
 - 번역하는 데 힘들어 하는 학생은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 중요 어구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보충설명을 해준다.
- ⑤ 그룹 별로(3~4명 정도) 토론을 통해 키워드 5개 정도를 찾도록 한다.
 - 키워드 발표 : 그룹 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키워드를 발표하고 키워드로 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전원 발표 유도)
 - 중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작품 이해와 주제 도출을 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준다.
- ⑥ 그룹 별로 뽑은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 1개 당 3, 4개씩의 자신의 의견을 적도록 한다.
 - 예를 들어 ‘집’ 대해서 각자 ‘집’에 대한 의미를 적도록 한다.
 - ‘집’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곳이라든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라든지 하는 식의 의견이 나온다.
 - ‘누에고치’에 대해서는 누에고치의 의미, 즉 누에고치는 곤충의 변태 과정인 알—애벌레—번데기—성충 중 번데기에 해당하며 고치는 그 번데기의 집인 것을 이용해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변태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그림 1> 참조)
- ⑦ 가장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한 명씩 발표를 하도록 한다.
- ⑧ 작품의 전체적인 감상에 대해서 한 명씩 발표를 하도록 한다.
- 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작품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돌아가면서 하나 이상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
- 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붉은 누에고치』 낭독 CD를 들려준다.
- ⑪ 과제물로 A4용지 1장 분량의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다.(학생이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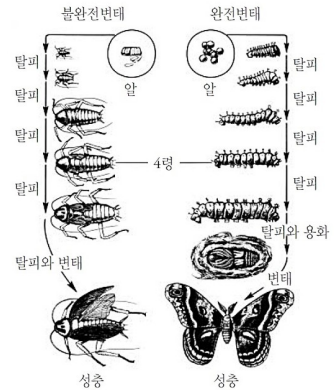
자신의 감상을 솔직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⑫평가는 수업 중 발표 태도나 과제물,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평가한다.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은 논술형 문제를 제출한다.

-평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하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배점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중간고사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말고사 배점을 중간고사 배점의 배로 하는 평가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배점 20점, 기말고사 배점 40점으로 하여 학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 진행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은 일본어 원서 작품을 손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게 대다수이다. 또한 작품을 그냥 일본어로만 읽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분석까지 할 수 있어서 제대로 작품을 읽었다 라는 의견이 나와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단지 주어진 수업 시간 및 교과목 편성 관계상 한 한기에 많은 작품을 읽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그림 1> 변태과정

5. 맺음말—문학교육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명작을 접하면서 성장해 왔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을 비롯한 이솝우화에서부터 「벌거벗은 임금님」을 시작으로 하는 안데르센동화집, 그리고 한국의 명작, 세계의 명작 등을 읽었을 것이다.

이러한 명작을 읽으면서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나 「벌거벗은 임금님」을 통해서 사회나 집단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진실해야 한다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독서 습관이 성장하면서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물론 꾸준히 왕성한 독서력을 과시하면서 사고력을 키워온 부류도 있을 것이다.

문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문학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학생이 되어서 외국 문학을 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자국 문학과 비교하면서 타문화·문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힘’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하는 분야가 대중들 사이에 파고들어 왔다. 최근에는 ‘문학치료’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문학치료’는 문학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 2, 3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시 낭송회’ ‘소설 낭송회’ 등이 그 대표적인 ‘문학치료’의 일면일 것이다.

우리가 강의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외국문학을 가르치려고 할 때,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어쩔 수 없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을 배제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단순히 명작을 읽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일본문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 『지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문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실시한 일본문학 수업의 일면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문학 작품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와 집단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과 변화를 꿈꾸고, 절대자와 운명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参考文献】

변학수(2006)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7) 『문학치료』 학지사.

루이스 로제블렛 저, 김혜리/엄해영역(2006) 『탐구로서의 문학』 한국문화사.

알베르토 망구엘저, 정명진역(2000)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新国語編修委員会編(1992) 『新国語Ⅱ 指導資料』三省堂.

田中実、須貝千里(2005) 『これからの文学教育のゆくえ』 右文背書院.

桑原真臣(2002) 「安部公房 『赤い繭』 再読」(大阪大学国語国文学会 『語文』 79輯).

高橋龍夫(2004) 「安部公房 『赤い繭』 論」(専修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 『専修語文』 75号)

山田伸代(2008) 「文学教育の希望」(『日本文学』 57-8)

山元隆春(2000) 「<記憶>を伝え、受けつぎ、共有する営みとしての文学教育」(『日本文学』 49-1).

府川源一郎(1999) 「私は文学教育をどのように考えるかー学習方法をめぐる私的なメモー」(『日本文学』 48-8).

竹村信治(1999) 「教えられるが教えていいのか」(『日本文学』 48-4)

鳥居明久(1999) 「教室という読むことの場合」(『日本文学』 48-3).

ジョージ. P. ランドウ著, 若島正, 板倉巖一郎訳(1996) 『ハイパーテキスト』 ジャストシステム出版

要 旨

本論は、今まで教育現場で行われている日本文学の教育方法についての考察である。特に文学作品の‘読み’についての教育方法の一例である。ここでテキストとして使われているのは安部公房の短編小説『赤い繭』である。このテキストを選んだ理由は、まず、高校の教科書に載せ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また、教科書の『指導資料』があるということ、そして朗読のCDテキストがあるからである。

文学は特に誰が教えるのか、によって変数が大きい学問である。例えば、教材の選択も担当の先生によって違ったりする。また、学習者たちに文学は難しい、面白くない、文学を何のために研究するのか、と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文学は人文学の危機という雰囲気の中でその立場が狭くなってきた。

筆者は20代に文学への情熱とともに文学に人生をかけた。今は大学の学習者から文学への情熱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のような教育環境から、文学の重要性を学習者たちに伝えたいと思い、文学教育の方法を模索することになった。

たしかに、文学も講義室で文学を教えるとき、それに当たる教授法があるだろう。それで、高校の教科書に載っている作品、安部公房の『赤い繭』をその『指導資料』を分析しながら文学教育方法も模索してみた。特に、実際行った授業をまとめてみた。

これからの文学授業は、<文学治療>という領域から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る。文学作品を通して、幸せに暮らす生き方を得ることからはじめ、社会と集団を考え、自分を考え、発展と変化を考え、神と運命などを考える契機になってほしい。

キーワード：日本文学 教育方法、教科書作家、安部公房、家、赤い繭、壁

투 고 : 2010. 11. 30

1차 심사 : 2010. 12. 11

2차 심사 : 2011. 1. 08

【참고자료】 『붉은 누에고치』 전문 소개

날이 저물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보금자리를 찾아가지만, 내겐 돌아갈 집이 없다. 거리에 이렇게 많은 집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내 집이 한 채도 없는 건 왜일까?……하고 수 없이 되새긴 의문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나는 집들 사이의 좁은 틈바구니를 천천히 걷고 있다.

전봇대에 기대어 소변을 보는데, 그곳에 마침 새끼줄 자투리가 떨어져 있어서 난 목을 매고 싶어졌다. 새끼줄은 결눈질로 내 목을 노려보면서, 형제여, 내 안에 쉬거라 하고 손짓했다. 정말 나도 쉬고 싶다. 하지만 쉴 수가 없다. 난 새끼줄과 형제가 아니며, 게다가 아직 왜 내 집이 없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밤은 매일 찾아온다. 밤이 오면 쉬어야 한다. 쉬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 집이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난 뭔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잊어버리고 만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예를 들면……말야, 우연히 지나는 길에 어느 한 집 앞에서 발을 멈추고, 이게 내 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집과 비교해서 특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특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어느 집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이며, 또 그것은 내 집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다. 용기를 내어 자, 문을 두들겨 보자.

다행히도 반쯤 열린 창으로 친절해 보이는 여자가 내다보며 웃었다. 희망의 기운이 심장 가까이 스며들어, 내 심장은 평평하게 넓어져서 깃발이 되어 펄럭이고 있다. 나도 웃으며 신사답게 인사를 했다.

“잠깐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가 제 집이 아닌가요?”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어머, 누구신가요?”

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만 말문이 막혔다. 뭐라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누구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에게 어떻게 납득시켜야만 할까? 난 다소 자포자기적인 기분으로,

“어쨌든 여기가 제 집이 아니라면, 그걸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머……”

그녀의 얼굴이 겁에 질렸다. 그게 내 신경을 건드린다.

“증거가 없다면, 제 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군요.”

“하지만 여긴 내 집이에요.”

“그게 어쨌다는 건가요? 당신 집이라고 해서 내 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답 대신 여자의 얼굴이 벽으로 변하여 창문을 가로막았다. 아, 이게 바로 여자의 웃는 얼굴의 정체인 것이다.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논리를 갖다 대는 정체가 바로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식의 변신이다.

하지만 왜……왜 모든 것이 누군가의 것이며 내 것은 아닌 것일까? 아니, 내 것이 아니라도 최소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이 하나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또 나는 착각을 하고 말았다. 공사장이나 재료창고의 도판이 내 집이라고.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며, 이윽고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 위해 내 의지나 관심과는 무

관하게 그곳에서부터 사라지고 말았다. 혹은 명백히 내 집이 아닌 것으로 변형되고 말았다.

그럼 공원의 벤치는 어떤가. 물론, 좋지. 만일 곤봉을 든 그가 와서 내쫓지만 않는다 면……그것이 정말로 내 집일 것이다. 확실히 이건 모두의 것이며 누구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이봐. 일어나. 여긴 모두의 것이고, 누구의 것도 아냐. 하물며 네 것일 리가 없다. 자 빨리 가란 말이다. 그것이 싫으면 법률의 문을 통해 지하 감옥으로 가든가. 그 외의 장소에서 발을 멈추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만으로도 넌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유랑하는 유대인이란 그렇다면 날 두고 한 말인가?

날이 저물고 있다. 난 계속 걷고 있다.

집……사라지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고, 지면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집들. 그들 사이의 어느 것 하나 정해진 얼굴을 갖지 않고 계속 변해만 가는 균열……길. 비오는 날에는 슬 처럼 일어나고, 눈 오는 날에는 차바퀴 자국 폭만큼 좁아지고, 바람 부는 날에는 벨트처럼 흐르는 길. 난 계속 걷고 있다. 내 집이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뺄 수도 없다.

이제, 누구야. 내 발에 휘감기는 게? 목을 뺄 새끼줄이라면, 그리 성급하게 굴지 마라. 그렇게 보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닌데. 이건 탄력 있는 명주실이군. 잡아당겨보니 그 끄트머리가 구두의 해진 틈 속에서 끊임없이 주르르 풀려 나온다. 이건 참 묘하다는 생각에 이끌려 끌어당기자 더욱 기묘한 일이 생겼다. 점차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더 이상 지면과 직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지축이 기울고 인력의 방향이 바뀐 것일까?

탁 소리를 내며 구두가 발에서 벗겨져 지면에 떨어지자, 난 사태를 이해하게 되었다. 지축이 뒤흔들린 게 아니라 내 한쪽 발이 짧아진 것이었다. 실을 잡아당김에 따라 내 발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었다. 닳아 떨어진 재킷 팔꿈치가 터지듯이 내 발이 풀려나가고 있다. 그 실은 수세미 섬유처럼 분해된 내 발이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 망연자실하여 내내 서 있자, 이번에는 손안에서 명주실로 변형된 발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르르 기어 나와서는 전혀 내 손을 빌리지도 않고 저절로 뱀처럼 풀려나가 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왼쪽 발이 전부 풀려버리자, 실은 자연히 오른쪽 발로 옮겨졌다. 실은 이윽고 내 전신을 봉지처럼 감쌌지만, 그래도 여전히 풀려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어깨로 차례로 풀려나가, 풀려진 실은 봉지 안쪽에서부터 단단히 굳혀져갔다. 그리고 끝내 난 소멸했다.

드디어 커다란 텅 빈 누에고치만이 남았다.

아아, 이제야말로 설 수가 있다. 석양이 누에고치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내 집이다. 하지만 집이 생겼어도 이번엔 돌아갈 내가 없다.

누에고치 안에서 시간이 멈춰졌다. 밖은 어두워졌지만, 누에고치 안은 언제나 황혼으로, 안쪽에서 비춰지는 저녁노을 색으로 붉게 빛나고 있었다.

이 두드러진 특징이 그의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는 누에고치가 된 나를 철로 건널목과 레일 사이에서 발견했다. 처음엔 화를 냈지만, 곧 신기한 물건을 주웠다고 생각하고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잠시 그 안에서 데굴데굴 구른 후, 그 남자의 아들의 장난감 상자 속으로 옮겨졌다.(번역 이정희)